

2026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NEXT) 전문인력 해외파견 참가자 2차 공모 심사 결과 발표

□ 선정 결과: 총 4명

○ 선정자 목록(선정자명 가나다순)

공모유형	성명	파견국	파견기관
지정형	정○슬	호주	Queensland Museum
자율형	박○수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센터
	윤○희	오스트리아	International Screen Institute
	최○경	프랑스	Zone Sensible (Parti Poétique)

□ 종합 심사평(최종)

2026년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문인력 해외파견 2차 공모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사업 이해도, 수행계획의 구체성, 수행역량, 성과 확산 가능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서류심사에서는 지원자가 직접 발굴한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 기반, 관련 분야 수행 이력, 직무 및 연구 역량, 언어 능력 등을 중심으로 수행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공연예술, 시각예술, 미디어아트, 전통 문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신진 및 전문인력이 지원하였으며 지원자들은 대체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파견기관의 적합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사업 참여를 통한 성장 가능성 및 향후 성과의 환류 및 확산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지원자는 제출자료만으로 수행역량과 경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연구 또는 직무 수행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면접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사업 이해도와 수행 의지, 수행계획의 타당성, 국제문화교류에 대한 이해, 성과 활용 및 환류 계획 등을 중심으로 심층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원자는 활동 목적과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국내 문화예술 현장에 환류·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지원계획은 연구 또는 개인 창작 활동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해 국제문화교류 전문성 강화와 현장 활용, 공공적 성과 창출과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 협력관계의 연장보다는 새로운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발굴하고 교류를 확대하려는 관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수행형의 경우에도 학술적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국내 문화예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무적 성과와 환류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원자들이 사업의 취지와 파견기관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파견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국내 문화예술 현장과 국제문화교류 분야에 환류할 수 있는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선정된 참여자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국내 문화예술 현장과 국제문화교류 분야에 적극적으로 환류하고 지속적인 해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고 국내 문화예술 현장과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사위원(가나다순)_김세준, 김현주, 김희영, 심희대, 안지영, 최해인
(지정형 면접)Ben Hampe, Sally McRae